

# 지속가능발전 추진 전략으로서의 환경교육 네트워크

정 병 준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준))

## 들어가는 말

지구상에서 인류는 2차대전 이후 급속한 고도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고도성장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다양한 환경문제를 낳았고 금세기에 들어서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 없이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어 과거 전 국토의 70%에 이르던 산지가 60%로 낮아졌으며 해안 또한 매립을 반복하며 무차별하게 파괴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의 파괴는 그 동안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지금은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하여 도심의 학교에서는 자연을 학습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변의 소공원, 하천 등을 자연학습 소재로 활용하는가 하면 학교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어 가는 푸른 학교 운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피폐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생태교육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인간적이며 정서가 풍부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활동인 것이다.

## 1. 환경교육에 대하여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몇 년 사이 환경에 관한 활동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환경교육, 생태교육, 체험교육, 체험환경교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환경교육에 임하는 교육자도 학교환경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사라고 불리지만, 사회환경교육 현장에서는 자원 활동가, 지도자, 안내자, 해설자, 안내자 등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환경교육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개념으로 정리해 보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그동안의 환경운동과 함께 한 경험에서 말하자면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지식 전달뿐 아니라 숲, 하천 등 자연 속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감수성과 생명에 대한 경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2. 환경교육 현황과 과제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제가 채택된 이후로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각계각층에서 환경을 큰 문제로 인식하여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이후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일본의 제안으로 5번에 걸쳐 환경교육에 관련된 국제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이를 토대로 12월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2005~2014년까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이라는 의제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안자였던 일본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ESDJ)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여러 단체들에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발전보다는 한가지의 틀로 묶여져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오로지 '환경교육'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을 몰아넣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다만 근래에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자 관 주도형으로 양성되는 문화해설가와 비슷한 형태로 생태안내자에 대한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환경교육을 단순하게 식물의 이름을 외우고, 동물의 생태를 교육하는 또 하나의 교과목으로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 우리가 바라는 환경교육은 자연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연과 친숙하게 하고, 직접 체험을 통하여 자연을 이해하고 동화될 수 있는 자연인이 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환경에 대한 애정과 이를 지키고 가꾸어나가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환경교육자는 살아있는 유기체적 자연을 변화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열심히 활동해 나가야 한다.

### 3. 환경교육의 원칙 제안

그동안의 환경교육은 학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행하여 졌다. 아울러 그 형태 역시 답사나 기행 또는 탐사 등으로 지역알기 등의 활성화로 인한 현장교육이나 학교에서 시행하는 캠프 등 행사성 위주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매우 강하다.

그로 인한 결과로 인해 지역을 지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자원 재활용, 우리지역 알기, 탐사활동 등의 이름으로 환경한마당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의 장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지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타 지역과의 비교는 가장 확실한 체험이란 생각에 기행 또는 탐사란 이름으로 철새나 갯벌을 찾아 떠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무척이나 소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밀천이 금방 바닥나는 일회성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스레 지속적인 환경 지키기를 통한 지역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즉 지역 지키기를 위한 환경운동에서 시작하여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이 환경교육을 통한 지역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장기적 운동을 통해 지역 지키기라는 명제를 실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운동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환경교육이 행해져야 함이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만물박사가 되어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기보다는 함께 알아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전제가 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활동을 하다보면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장소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 가지 경험적인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환경교육은 장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서 많은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의 활동이 환경교육 일환으로 철원철새기행을 하는 것이었다. 이 중 특히나 많은 부분을 느끼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철원의 철새기행중의 일로 이들은 군용차량을 너무나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름의 판단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들이 그 지역의 환경에 익숙해 졌기 때문일 것이란 생각이다. 이로서 생태기행을 갈 경우 지역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는다는 원칙하에 기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역 식당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교육을 통한 지역지킴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나름의 원칙으로 삼을 때 우리의 기행을 통한 환경교육이 지역에 대한 예의이며 진정한 환경교육을 위한 기행이 된다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의식에 대한 자각을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환경교육의 목표이며 이로 인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민의 그룹이 형성되는 것은 참 바람직한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시 유명 강사초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환경교육과 더불어 생태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있다. 수도권중심으로 확산되었던 것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60~70군데 이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최근 많은 학교들에서 진행되는 책가방 없는 날이나 주5일제에 대비한 교육과정의 개선 등에 대한 영향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이것이 또 하나의 과외대상화 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그리고 그 한 과정에 각종 캠프의 유행과 확산은 환경체험을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또 다른 상업화로 진행되는 것은 수요를 바탕으로 한 필요악으로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이에 지역을 중심으로 각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캠프, 철새탐사, 갯벌탐사 등 타 지역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역으로 상업성을 띤 그것에 비해 질적으로는 우수할지 모르나 인식적인 측면이나 정서상 외면당하기 쉬운 실정으로 어쩌면 한계일 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장소 중심적이며, 지역성을 강하게 띄는 방식의 도입이 중요할 것이란 생각이다. 각 지역마다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무궁무진하다. 주위의 작은 산, 하천, 공원 등 찾아만 보면 많은 장소가 있다. 그저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단순하게 자연을 즐기는 교육이라면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배우고 지키는 쪽으로 중심이 이동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은 장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꾸준히 지역을 모니터링 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생태지도자이어야 한다.

## 2) 환경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교육은 학제에 의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질 수 없는 교육이다. 대상의 인지와 발달단계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를 뿐이며 내용의 중심은 환경보존이며 환경지킴이 양성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회성이나 이벤트적인 환경교육은 비판받아야 하는 교육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환경교육 관계자들의 심층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

또한 환경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개념에서 모든 연령을 포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교실 안이나 틀에 박힌 곳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숲, 갯벌의 특정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일상적 생활과 경험이 어우러져서 행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일상의 생활방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른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음에도 살아있는 교과서인 자연을 배우는 과정이 없었다.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이 자연 생태에 대한 감수성과 생명에의 경외감을 갖게 함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환경교육은 생명교육이기에 지속성을 지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피 교육자가 교육에 능동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식물 관찰을 통해 자연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는 체험학습과 계절적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다양화하여 진행된다면 지속성의 끈은 이어질 것이다.

## 3) 환경교육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몇 번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생태지도자 양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유행처럼 생겨나는 대안 직업의 한 형태로 교육을 받는다면 배우는데 그치고 마는 교육이 될 것이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듯이 정형화된 틀에서의 교육이 되고 말 것이다.

환경운동 행위의 한 줄기로 시작된 환경교육은 이제 학교교육에서 충족되지 못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즐거운 평생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의식에 대한 자각을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환경교육의 목표이며, 이로 인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민그룹 들이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교육의 모습일 것이다. 자연을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에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투여해 나간다면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함께 하는 길이란 것을 누구나 쉽게 느끼게 될 것이다.

환경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있듯이 환경교육도 환경교과, 과학, 생물의 범주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학문과 학문 사이를 이어주며 학문과 학문 사이를 묶어주는 교육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현장의 축적된 결과를 갖는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 환경교육 네트워크 결성 및 활동사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된 활동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자라는 어린이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어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지역별로 환경교육 주체들이 모여서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1) 경기 민간환경교육 네트워크 활동

경기도 지역에서 원칙을 갖고 변해가는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지켜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3년 6월 「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 11개 단체가 출범하였으며, 현재 경기지역 13개 단체의 연대로 발전하였다.

「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는 환경을 지역민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인식하에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순수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한다. 교육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어 가고자 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우리들의 의식을 생활 환경교육 등으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전하여 안전하고 생태적인 삶을 이루고자 함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에서는 그 동안 공동사업으로 2001년 생태지도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생태도시 만들기로 연대사업을 펼쳤고 200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공동 연수를 통해 지역화합 및 환경교육의 교류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초석마련을 구축하므로 경기도의 환경교육 현장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의 어려움과 나아갈 방안을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가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고민하면서 일구어 갈 수 있었다.

「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 공동사업에서 이룬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 생태 자원활동가 심화과정 프로그램 진행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 지역별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하고 동네에 맞는 환경교육 방안 모색
- 환경교육 활동의 상업화 보다는 공공성으로 방향전환추진
- 네트워크 활동과 사업을 구체화하고 공공성을 확보
- 지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단체들과 함께 연대사업모색
- 정보의 공유를 통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생태 자원활동가 공동 연수 실시
-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워크샵 개최

##### 2) 부산환경교육 협의회 활동

2002년 부산지역에서는 부산 Agenda21 인 「녹색도시부산21」이 중심이 되어 환경교육 주체 (교육청, 학교, 지자체, 민간단체 등)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현재 그 중심구성원을 보면 과학정보 기술과장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 외 지역에 바탕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각계 각층의 21명의 위원, 간사 1인으로 구성되었다.

네트워크는 그 구성원들의 환경교육면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즉 위원들 상호간의 자문 및 논의는 네트워크 활동으로 환경교육협력, 교원연수, 학생 교육 프로그램, 환경문화 프로그램, 지속적인 환경 체험학습 조성, 서식처 복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3) 경남환경교육 네트워크 활동

경남지역에서는 2002년 Agenda21 인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환경교육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교육 주체인 교육청, 도의회, 지자체, 민간단체, 그리고 낙동강 유역관리청이 함께 하고 있다.

네트워크에서는 크게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의 내실화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환경교과 선택 확대, 교재, 프로그램, 시설 등 환경교육여건의 개선,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간 협의체계 마련, 환경교육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방안 마련 등 이외에도 많은 방법을 고민하여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4) 경기지역 환경교육 한마당

최근 12월 4일 경기도 수원실내 체육관에서는 2004년 푸른경기21 환경교육 프로그램(학교기획 공모사업, 학교공모사업, 생태안내자 교육 등) 환경교육 활동의 사례를 모아 발표하는 「경기지역 환경교육 한마당」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 학교 12개팀, NGO 23개팀이 참석하여 환경교육 활동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심사는 심사위원의 심사하는 프로그램 진행 및 내용 심사와 참가자들이 서로 심사하는 플로어 심사가 있었다.

심사위원심사는 발표형식으로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약5분간의 사례발표시간이 주어졌으며 플로어 심사는 지역에서 교재개발, 교구활용, 프로그램개발 등을 전시하여 교차 평가하는 공개심사로 진행 하였다.

그 외에도 참여마당에서는 물물교환장터, 목걸이 만들기, 전통염색하기, 풀잎으로 만들기, 한지로 엮서만들기 등 각 단체의 체험환경교실이 열렸다.

이러한 행사는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동반자들 간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 할 수 있다.

심사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분야(100점)	심사항목(예시)	배점	배점기준(예시)
1. 발표에 대한 평가 (20점)	1.1 발표를 시각적효과, 발표시간, 내용전달이 잘되었는가?	10	A(10)=아주 잘 전달됨 B(8)=잘 전달됨 C(6)=약간 전달됨 D(4)=전달이 부족함 E(2)=거의 전달되지 않음
	1.2 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표준비와 부스,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열의를 보였는가?	10	A(10)=열의가 아주 많음 B(8)=열의가 있음 C(6)=보통임 D(4)=열의가 부족함 E(2)=열의가 없음
2. 프로그램의 지역적 특성 (20점)	2.1 프로그램이 해당지역의 현황과 특성등을 이용하고 있는가?	10	A(10)=아주 적합함 B(8)=적합함 C(6)=약간 적합함 D(4)=거의 적합하지 않음 E(2)=부적합함
	2.2 해당지역의 환경교육으로서 지속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10	A(10)=지속성과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음 B(8)=중지속성과 교육적 효과가 높은 편임 C(6)=중간 수준임 D(4)=효과가 낮음 E(2)=효과가 거의 없음
3.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20점)	3.1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이 환경친화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0	A(10)=매우 많음 B(8)=많음 C(6)=보통임 D(4)=약간 있음 E(2)=거의 없음
	3.2 교육내용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10	A(10)=매우 높음 B(8)=높음 C(6)=보통임 D(4)=약간 있음 E(2)=거의 없음
4. 이행성과와 파급효과 (30점)	4.1 교육내용이 추진과정, 추진방식 등을 타지역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15	A(15)=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됨 B(12)=효과적인 적용 가능 C(9)=적용 가능 D(6)=적용하기 어려움 E(3)=적용 불가능
	4.2 지역사회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비전과 계획, 이후 활동에 대한 방향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5	A(15)=가능성이 매우 많음 B(12)=가능성이 많은 편임 C(9)=보통임 D(6)=가능성이 약간 있음 E(3)=가능성이 거의 없음
5. 평가자 점수 (10점)	5.1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성과, 추진과정 등에 대한 평가자의 종합적인 판단	10	A(10)=종합적인 판단결과 매우 우수함 B(8)=우수한 편임 C(6)=보통 수준임 D(4)=약간 미흡함 E(2)=매우 미흡함

이외에도 안산지역의 민간단체들의 안산환경교육연대, 성남환경교육 네트워크 결성준비 등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여러 지역의 풀뿌리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것이다.

## 5.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준비대회

### KEEN 추진경과

- 2004년 8월 21일 :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준비모임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회의실)  
제안자 : 한국교원대 환경교육과 최돈형 교수, 환생교 이수종 사무처장, 환경노동위원회 제종길 의원,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정병준대표 공동제안
  
- 2004년 9월 4일 :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36인의 공동발기  
/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의 필요성의 공유로 명칭과 목적 표명
  - 목적: 환경교육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과 국민 삶의 질 제고
  - 명칭: (준)환경교육네트워크(영어약칭:KEEN)로 한다.  
(Korea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 2004년 09월 04일 :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를 위한 준비대회 실무 1차 회의  
/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준비대회 진행 및 필요성 논의
  
- 2004년 9월24 :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를 위한 준비대회 실무 2차 회의  
/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준비대회 진행 논의
  
- 2004년 10월 16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제3차 회의  
/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준비대회 임시사무국 위임( 분당환경시민의모임)
  
- 2004년 10월 16일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를 위한 준비대회 실무 3차 회의  
/ ·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준비대회 홈페이지 제작하기로 결의  
· Site 주소 [www.keen.ne.kr](http://www.keen.ne.kr), [www.keen.or.kr](http://www.keen.or.kr) 확보(공주대 이재영.교수)
  
- 2004년 11월 12일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를 위한 준비대회 실무 4차 회의
  
- 2004년 11월 20일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제4차 회의  
/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준비대회 계획안 확정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 준비대회는 위의 과정의 통해 오는 2005년 1월 28일 29일 1박 2일간 경기도 한신대 성빈학사에서 치러 질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 환경교육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KEEN의 필요성과 비전, 추진 및 운영방안, 주요과제 등이 논의된다. 이에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는 본인의 소견으로는 아래와 같다.

### ① 체험활동 공동보험제도 도입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험활동 공동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체험활동 시 여행자 최고보상한도가 2~3천 만원에 불과하며 개별 단체별, 개별보험사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행제도는 체험활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 ② 생태지도자가 공동인증제 도입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생태안내자 자격증보다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공동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각 지역마다 각 단체마다 생태지도자 연수를 통해 전국적으로 자원 활동가 연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환경윤리, 안전의식 등이 포함된 공동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공동 연수가 필요하며 각 지역에 맞는 연수는 지역 현실에 맞게 진행하여 공동인증제 도입을 고민하고자 한다.

### ③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포털 사이트 제작

인터넷 세상에 살아가는 현재로써는 환경교육 온라인의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오프라인의 교육의 미비점을 온라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환경교육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새로운 장을 형성할 수 있다.

물론 사이트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만들기 전 준비와 만들어지는 과정, 만들어지고 난 후의 운영이 일체가 되어져야 한다.

환경교육은 자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되서는 안 되는데 일부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환경교육이 이미 상업적 관심에 눈길을 끌고있는 상태이다. 자연은 상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용의 대상에서 보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 환경교육 네트워크는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환경교육의 시장을 정비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민간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결성은 서로가 도움이 되는 관계이면서 나약해 질 수 있는 결집에 서로의 감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행해지는 환경교육을 서로 평가하고 좀더 바람직한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끝도 없고 목표도 변하는 환경운동의 외로운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워크숍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환경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공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환경교육 분야에 있는 전문가, 교사, NGO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므로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 맺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다행히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가 함께 걱정하게 되었고 환경을 지키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희망의 싹을 발견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한다.

주변에서 환경, 환경을 외쳐대니까 이제는 환경의 중요성을 다들 느끼지만 생활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환경운동을 펼쳐나가는 우리도 반성이 된다. 형광등이 그냥 켜져 있어도 귀찮아서 그냥 지나칠 때가 더 많고 물 좋고 풍부한 우리나라가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도 그냥 흐르는 수도꼭지의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잊게 된다.

환경의 중요함을 느끼기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틀을 만드는 것은 누구 한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도 행해져야 하는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된 교육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교육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느끼고 알게 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과정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자연은 정복의 대상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변해 가는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지켜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정립된다면 새로운 시각의 환경교육의 장이 열릴 것이다.